



복음기도신문은 복음과 기도의
증인들의 믿음의 고백과 열방의
뉴스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해석해 성도를 일깨우고 열방의
중보기도자로 세우기 위해 격주
로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복음기도신문

한국어판 www.gpnews.org

영어판 gpnewsen.org

일어판 gpnewsjp.org

중어판 gpnewsch.org



2010. 10. 3 창간

Gospel Prayer Newspaper

2024. 1. 28 ~ 2024. 2. 10 제294호

브라질 복음주의 급성장, 20년 만에 2배 인구의 31%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 '10년간 복음주의의 성장' 보고서 발표

지난 20년 동안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성도들의 수가 급 성장해 2000년에 비해 두 배에 달하는 인구의 31.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현재 브라질의 12만 4529개의 종교 시설 중 오순절 및 신오순절 복음주의가 전체의 52%, 전통적인 복음주의는 19%로 복음주의 교회가 전체의 71%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브라질 응용경제연구소 (IPEA)가 최근 밝혔다. 가톨릭 교회의 시설은 11%에 이르며, 나머지 8%는 대부분 커뮤니티 자선단체, 교육 협회 등으로 알려졌다.

'최근 10년간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시설의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이 연

구결과에 따르면, 2000년에는 브라질 인구의 약 15.4%가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혔지만, 2010년에는 약 22.2%로 증가한데 이어 최근에는 31.0%까지 늘어났다. 이러한 증가에 대해 연구소는 부분적으로 교회와 종교행사가 많은 도시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것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가속화된 도시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사회·경제의 변화도 이러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 라디오, 텔레비전, 소셜네트워크와 같은 미디어와 기술의 효과적인 사용도 종교적 메시지를 전파하고 복음주의 성도가 늘어나는데 중요한 역할

을 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복음주의자의 성장세가 브라질 정치와 밀접한 관계성이 있었던 것도 주목할 만한 요소로 지목했다. 이들 종교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입법 및 행정직에 선출되면서 사회의 공공 정책, 인식,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브라질에서 복음주의 교회의 수와 지리적 분산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복음주의 교회는 주로 대도시에 밀집돼 있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 농촌지역을 포함해 브라질 내륙 전체적으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는 것이 이전에 비해 크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분석이다.

교회 설립의 경우, 오순절 또는 신오순절 교파 설립은 최근 4배로 급증, 2021년에 거의 3만 6000개에 달했다.

• 2면에 계속



출처: Unsplash의 Yuri Figueiredo



이중구 목사 (할렐루야교회)

“사랑 모르는 아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500원을 받기 위해 교회에 나갔던 어린 중구. 500원 속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소망은 다음세대를 섬길 어린 중구로 이끌어냈다. 목회자가 된 중구는 이

제 뒷골목을 배회하며 사랑을 갈구하는 오늘의 중구를 찾아 나선다. 다음세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는 아이들을 찾가지 찾아내고 끝까지 놓지

않는다. 그래서일까? 아이들은 그를 '호랑이'라고 부른다. 연산동 호랑이 이중구 목사의 순종기를 청취했다.

• 4면에 계속



마음의 눈을 밝히사 (77)

의문이 의심으로, 사탄이 원했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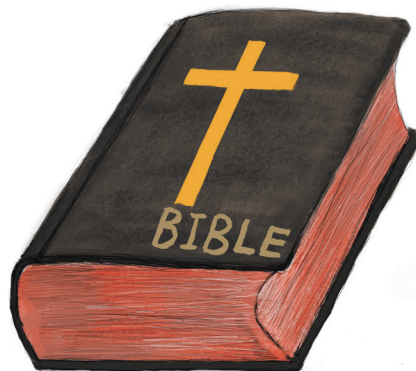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 의문을 던졌다는 점에 주의 기울여야 한다. 사탄은 그 의문으로 하와가 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일, 곧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심하는 일을 하와의 마음에 심어 주고 있다. 사탄은 하와가 무엇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투로 질문했다. “하나님이 그러셨단 말이지, 정말?” 사탄은 “말도 안 돼! 기가 막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다.

“너는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지? 혹시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네게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 과연 네 생각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고 진실하실까?”

사탄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정직한 분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의 고리를 걸고 있다. 사탄은 사람을 염려하는 척, 마치 도움을 주는 척 했다. 사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슬쩍 모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사탄은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하는 데 성공했다.

더욱이 사탄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말씀을 불필요하게 과장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 먹는 것을 금지하신 적이 없다. 다만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을 금하셨을 뿐이다! 그런데 사탄의 과장은 지금 그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



일러스트=김경선

라.”(창세기 3:2, 3) 하나님은 누구의 변호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런데도 이때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을 변호하려 들었다. 그런 열심이 지나쳐,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무엇인가를 더하고 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 뿐이지,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다. 하나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빼기 마

련이다. 하와는 하나님을 실제 이상으로 엄격한 분으로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손상하고 있다. 성경의 말씀에다 무엇을 덧붙인 것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했던 전부였다. 마치 저수지 독에 막금이 가기 시작한 것과 같았다. [GPNEWS] 엠마오 길에서 만난 사람 (존 크로스.엔티엠 출판부. 2006)에서 발췌

복음기도신문?

전도현장에
사용되며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열독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신문입니다

구독신청 및
동역 문의

010-6326-4641

포토뉴스

동성 결혼 합법 그리스, 돌이키는 은혜를 기대하며...



▲ 빌립보 유적지 로마시대 원형극장. 제공: WMM

인구의 80~90%가 정교회 신자인 그리스...

앞서 그리스 정교회는 2015년 12월 그리스 의회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통과될 때도...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할 시점이다. 동성 결혼 합법화와 아동 입양까지 허용하며 두려움 없이...

• 1면에 이어

전체 종교 시설 중 71%가 복음주의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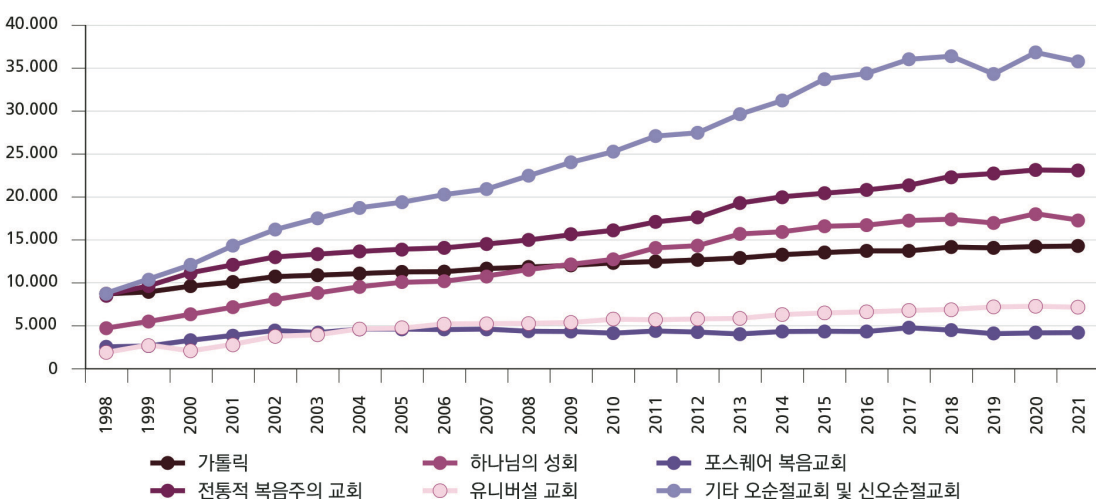
이러한 성장은 21세기 복음주의 분야의 다원화, 일반적인 대형 교단에 대한 반대 움직임에서 비롯된 소규모 교단의 증가라는 결과에 따른 현상이다.

또한 대형교단 중 하나님의 성회는 과거 4700개에서 1만 7000개 이상으로 가장 많이 성장해 2000년대 말 가톨릭을 추월했다.

브라질은 현재 인구의 절반에 해

당하는 1억 명 이상의 신자를 가진 가장 큰 로마 가톨릭 공동체가 있다. 하지만 1970년대까지 브라질 국민의 92%가 가톨릭신자였다. 2000년대 이 비율이 73.6%로, 2010년에 64.6%로 감소하고 현재 브라질 인구의 50%로 떨어졌다. 이에 반해 1970년대 복음주의 교회는 5.3%에 불과했으나 최근 6배 정도로 늘어났다.

그러나 오순절교회를 비롯한 복음주의 교회가 이처럼 브라질에서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부분의 구조적인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GPNEWS]



▲ 브라질의 특정 교파에 따른 종교 시설 수 현황 (2000-2021). 출처: IPEA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 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美 학부모 60% "선정적·동성애 도서 연령 제한 원해"

미국 학부모의 60.3%가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선정적·동성애적 내용의 도서에 대해 연령 제한을 두길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에브리라이브러리 인스티튜트와 북 라이엇의 여론조사를 인용해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전했다. 또 56.8%의 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읽는 모든 책의 정보를 알아야 한다고 답했고, 37.2%는 LGBT(내담대성별) 캐릭터와 아동 도서 주제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로 아이들의 영혼을 낚아채려는 사탄의 공격 앞에, 미국의 부모들이 깨어 진리의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소서. 다음세대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日 노토지진 재해 지역, 재해 피해 빈집털이 등 범죄 발생

일본 경찰청은 노토반도 지진 피해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주택에 대한 빈집털이나 대피소에서의 날치기 등 재해에 편승한 범죄가 지난 10일 기준 17건 확인됐다고 밝혔다. NHK를 인용해 뉴시스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더욱이 일본 정부가 지역 이재민을 상대로 타지역으로의 '2차 피난'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재해지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진 피해를 입은 현지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넘어짐으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폈던 사마리아인 같이 어려운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본의 영혼들이 되게 하소서.

韓, 신년운세 보는 청년 증가... 기독교 청년 40%, 점·타로 경험

새해 들어 사주와 타로를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독교 청년의 40%가 마음의 평안을 위해 점·타로 등을 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굿뉴스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타로·관상·사주 관련 게시물도 10만 개가 넘는 등 비대면 상담과 유튜브를 통한 운세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진리가 아닌 거짓에 마음 전부를 쏟는 청년 세대를 긍휼히 여기사 오직 생명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게 하옵소서.

2024 기독교 박해 순위 1위 '북한'... 박해 속 라오스는 부흥

매년 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를 발표해 온 한국오픈도어 선교회가 지난 17일 2024년 '월드와치리스트(WWL)'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10대 박해국은 북한(1위)에 이어 소말리아(2위), 리비아(3위), 에리트레아(4위), 예멘(5위), 나이지리아(6위), 파키스탄(7위), 수단(8위), 이란(9위), 아프가니스탄(10위)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2002년부터 올해까지, 2022년 한 해 (1위 아프가니스탄)를 제외하고 22년간 박해 순위 1위에 올랐다. 한편, 박해 순위 21위를 차지한 라오스는 박해가 악화됐지만,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고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사,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부흥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나라로 회복하옵소서. [GPNEWS]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24년 1월 29일 ~ 2024년 2월 10일

1월 29일 ~ 2월 3일 1.29(14시)~30(14시) ▶인천 서구 / 사랑교회 (장**)010-8888-8411, 1.29-2.3(07-19시) ▶경기 성남 / 금광교회(이**)010-9183-4198, 1.30(10-12시) ▶경기 수원 / 주님의교회(이**)010-5006-5529, 1.31(0-24시) ▶충남 서산 / 서산선한목자교회(최**)010-4828-3408, 2.2(0-24시) ▶경기 김포 / 꿈꾸는교회(강**) 010-4128-0448, 2.2(12시)~3(12시) ▶대구 중구 / 서현교회(권**)010-9275-7843, 그 외 6교회 진행중.

2월 5일 ~ 2월 10일 2.5(0-24시) ▶강원 고성 / 가마골교회(홍**)010-3191-8622, 2.5(08-20시) ▶울산 중구 / 태화교회(박**)010-9326-7767, 2.5(11시)~7(18시) ▶인천 연수 / 열방드림교회(오**)010-8240-3623, 2.5-10(10-20시) ▶서울 광진 / 빛과소금선교회(권**)010-7754-1726, 2.7(0-24시) ▶경기 수원 / 진흥교회(남**)010-8268-6879, 2.7-9(08-17시) ▶경기 의정부 / GNC선교센터(김**)010-7546-5945, 2.8(0-24시) ▶전북 전주 / 사랑하는교회(이**)010-7709-0691, 그 외 9교회 진행중.

* 더 많은 정보는 기도24-365홈페이지(www.prayer24365.org)를 참고해주세요. 느헤미야52기도에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은 사전에 연락하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느헤미야52기도 문의 ☎ 010-8267-4365)

현장 리포트 | K국 복음캠프

중앙아 복음캠프, 10년간 1000여 명 복음의 영광에 참여



▲ K국 복음캠프에 참여한 훈련생이 강의를 듣고 있다. © 복음기도신문

중앙아시아 K국, 새해가 시작되는 1월 2일부터 한 주간의 복음캠프가 진행됐다. 중앙아시아 중에서 가장 복음에 개방돼 있다고 했던 K국에서 복음캠프가 열리기 직전,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캠프가 진행될 지역에서 종교법 강화로 합동단속반이 교회를 방문해 교회를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교회 사용 정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자하는 목마름으로 달려오는 영혼들을 어찌하랴.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꿀 수 없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기 위한 걸음을 내딛었다. 오직 여호와와 선한 손의 도우심만을 구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미니라”(딤후 1:11)

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지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캠프에 훈련생 27명과 이들을 섬기기 위해 한국과 현지에서 동원된 섬김이가 무려 45명. 숫자로만 보면 한 훈련생이 생명의 복음을 누리는 기쁨과 영광을 위해 2명의 섬김이가 참여하는 특이한 구조로 시작됐다.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해외 복음캠프가 대부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어로 17번째 진행되는 복음캠프

이번에는 러시아어로 진행되는 17번째 복음캠프다. 첫 시작은 미약했다. 한국에 입국해 고단한 삶을 사는 소수의 고려인 이주민을 위한 러시아어 복음캠프가 한국에서 2015년 5월에 열리면서 시작됐다. 그 이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 4~5개국을 순회하며 복음잔치가 열렸다. 이 시간을 통해 지난 10년의 시간 동안 1000여 명의 훈련생이 복음 앞에 서는 은혜를 누렸다.

복음캠프를 하루 앞둔 2024년 1월 1일, 자정이 지나자마자 총소리, 대포 소리 같은 굉음이 연이어 들렸다. 불꽃놀이 소리라고 했다. 새해가 시작되는 1월 1일 자정부터 러시아권 국가들에서는 집집마다 폭죽을 터트리 불꽃놀이를 즐

긴다고 한다. 누워있던 이부자리를 박차고 밖으로 나가 집집마다 쏘아 올린 불꽃쇼를 지켜봤다. 밤하늘에 수놓인 불꽃들을 바라보노라니 지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는 감격이 밀려왔다. 뱅뱅 터지는 폭죽 소리가 지난날의 수고들을 날려 보내는 기분이 들게 했다. 눈앞에 펼쳐진 형형색색의 불꽃들은 앞으로 펼쳐질 아름다운 시간들을 기대케 했다. 언어, 인종, 문화가 다르지만, 폭죽을 터트리는 이들 모두는 새해를 맞으며 그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이다. 다만 하늘 소망을 가진 우리는 밤하늘을 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했다. 잠옷 바람으로 서서 폭죽 터지는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새벽 1시경, 캠프 세팅 일정이 소셜미디어(SNS)에 올라왔다. 아침 8시, 아침 식사에 이어 섬김이 모임으로 캠프의 공식 일정이 시작됐다. 일정 시작을 앞두고 평균연령 60대 이상의 캠프 진행팀이 꾸려졌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선교 현장에서 섬기고 있는 시니어 선교사들과 타지역 현장 선교사들, 그리고 순회선교단 복음팀장이 참여하는 캠프 진행팀이 구성됐다.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 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수 14:11)

이들은 나이 80세에 여전히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던 갈렙과 같았다. 물론 갈렙보다는 적은 나이였지만 지금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복음학교(캠프) 가운데 초고령 진행팀이 아닐까하며 모두들 웃었다.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진행되는 복음잔치

현재 순회선교단의 복음학교(지역에 따라서는 복음캠프로 불린다)는 한국을 비롯 전 세계 수십 개국에서 청소년층과 성인층, 목회자 그룹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때마다 이렇게 다국적 진행팀이 구성돼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러시아어 복음캠프는 젊은 복음팀장의 인도와

요청에 섬김이들이 모두 헌신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고령의 섬김이들에게서 연약한 육신이 빠져터져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 자신은 암엔 약하지만 감기엔 강하다며 찬물 샤워를 해가며 온종일 주방과 감사 숙소를 오가는 N선교사, 난생 처음 해보는 직임을 섬기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서도 일단 무조건 순종하는 K선교사, 매일 장을 보고 캠프장 시설을 돌아보는 H선교사, 모든 훈련생을 아우르며 학교 진행에 깨어 소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챙기는 J선교사. 이들은 여전히 강건하여 K국 영혼들을 복음 앞에 세우기 위한 출입을 감당했다.



▲ K국 복음캠프에 참여한 훈련생들. © 복음기도신문

러시아어와 함께 현지 언어 등 2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된 이번 캠프에는 십대 청소년들이 많이 참여했다. 그래서인지 강의의 절반을 지나기까지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십자가 복음 앞에서 우리의 죄인 된 실존을 볼 때는 진지했어야 함에도 현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 또 강의가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며 산만한 분위기의 청년들, 옆 친구와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건너편 친구와 농담을 하며 장난을 멈추지 않는 아이들, 조용한 듯 싶으면 졸고 있는 영혼들을 볼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들곤 했다.

캠프 진행을 맡은 운영지 선교사(순회선교단 중앙아시아지부)는 “성경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롬 10:16)’ 라는 구절이 생각난다.”며 “하지만 결국은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믿음대로 일하셨다. 캠프 후반부 일정한 ‘복음과 선교’ 부분의 강의를 끝날 무렵 강사님은 훈련생들과 섬김이들에게 선교사로 헌신할 것을 독려했다. 선교사로 순종할 사람은 일

어나 결단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 두 명을 빼고 모든 훈련생과 섬김이들까지 자신의 삶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드리겠다고 고백했다. 이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일이다. 윤 선교사는 “누가 기대를 했을까? 주님의 열심을 본다. 앞에 나가서 이들의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젖어있는 모습을 봤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었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그러나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캠프 신청자 중 7명은 참석하지 않았다. 캠프 기간 중 2명의 훈련생은 중간에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채 십자가 목걸이를 받지 않고 돌아갔다. 다만, 캠프 기간 동안 성경을 읽은 것으로 주님이 일해주시기를 바란다.

윤 선교사는 끝으로 이들을 향해 “돌아갈 때는 안타까웠지만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가장 정확한 때에 이분들은 만나 주실 것”이라며 “주님은 포기치 않으심을 믿는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되기에 이를 위해 기도한다.”고 전했다.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생명으로 회복됐음을 믿습니다”

복음캠프를 마치며 참석자들은 십자가 복음의 진리에 화합하며, 예수 생명의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내어놓았다. 다음은 복음캠프에 참여하고 복음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한 훈련생들의 고백이다.

“저의 결혼 생활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전 남자친구를 계속 생각했고 두 번의 낙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할 것을 결단합니다.” 수라칸

“저는 술을 자주 마시며 주변 사람들과 많이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나셨고 저는 강한 어머니 밑에서 중1 때부터 돈을 벌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죄가 뭔지 알게 됐고, 유흥을 즐기면서도 늘 마음이 공허했습니다. 누나를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지



▲ K국 복음캠프를 마치며 결단을 고백하는 훈련생(좌). © 복음기도신문

만, 저는 여전히 음란하며 술을 마셨고, 음란물을 즐겼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삶은 바뀌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죄 된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칭그스

“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죄를 끊으려고 했지

만 강아지가 목줄에 매인 것처럼 죄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타인에게 욕을 했습니다. 핸드폰, SNS, 공포영화가 나의 우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속였습니다. 자기 의가 강했고 믿는 사람들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이런 저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새생명으로 회복됐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겠습니다.” 출판

[GPNEWS]



삶의 풍경을 통해 본 하나님의 은혜

포기 없는 사랑으로 다음세대를 섬기는 이중구 목사 (할렐루야교회)

• 1면에 이어

- 다음세대 사역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첫 사역은 호주 시드니에서 한글보다 영어가 더 편한 1.5세 아이들을 맡으면서 시작했습니다. 저를 아끼는 교수님의 소개로 가게 됐어요. 이 얘기를 하면 영어를 잘할 것처럼 생각하시겠지만 영어 한마디 못하는 제가 그 아이들과 손짓 발짓으로 설교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호주에 간 지 얼마 안 있어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어요.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햄버거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계속 추가 질문을 하더군요. 분위기가 따라서 ‘예스, 예스.’ 이렇게 하다 보니 햄버거 4개에 음료수 3개, 감자 튀김이 나온 겁니다. 평평 울면서 햄버거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영어를 못했으니까 아이들에게 얼마

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는 ‘너 목사 되는 데는 내가 돈 쓸 수 없다.’고 하시며 지원을 끊으셨어요. 그렇게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서 거의 학교에서 살았어요. 용돈이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과 나눠 먹으면서 공부를 했어요. 문제는 다음 학기에 대한 보장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영도 앞바다 시퍼런 바다를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다음 학기에 보장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저에게 ‘당당하게 내가 공부해서 장학금 받아서 학교 다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감사하게도 졸업할 때까지 성적 장학금으로 졸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교수님이 저를 호주에 소개시켜주신 것도 제가 고신 교단에서 잘 자라서

리게 됐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제가 혹시나 손가락질 받을까봐 힘이 세야 되겠다는 마음에 골목대장처럼 아이들을 힘으로 위협하고 과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 교회는 언제 나가게 되셨나요?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게 5학년 때였어요. 교회에서 전도잔치라는 걸 하잖아요. 한 친구가 누구를 전도하면 제일 많이 아이들을 데려올까 고민을 하다가 저를 생각했나봐요. ‘중구야, 교회 한 번만 가 주면 안 되냐?’ ‘내가 가주면 뭐 해줄래?’ 했더니 1인당 500원씩 주겠다고 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11명 정도 제가 애들을 모아서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게 모교회인 재송제일교회를 처음 가는 순간이었어요. 교회 가서 처음 느껴보는 약간의 어색함이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해주는 밥도 못 먹고 늘 아빠의 거친 면만 봤는데, 선생님들은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따뜻하고 온화했어요. 처음에는 선생님들이 해주는 게 너무 좋아서 배고프면 교회 갔어요. 또 공과 공부 마치면 선생님이 500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셨죠. 500원 받으려고 교회에 가서 예배는 안 드리고 밖에 있다가 공과 공부하면 들어가서 500원을 받아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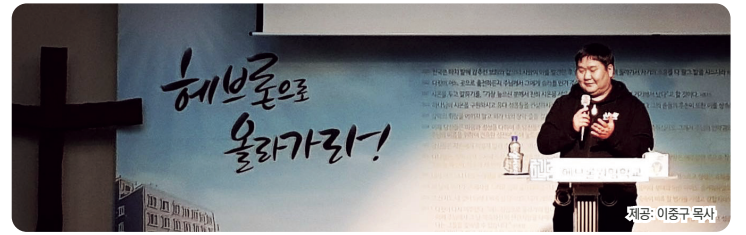
교회 선생님의 인내와 사랑을 경험하다

- 선생님의 인내와 사랑의 열매시군요.

“당시에 제가 사고 치고 염색하고 방황하는 청소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놈 뭐 될까, 저놈 얼마 없어서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장로님은 ‘나는 누가 뭐래도 네 인생이 너무나 기대되고 너무 빛이 날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주셨어요. 제 친구의 아버지이기도하시고, 당시에 부산대학교의 교수님이셨어요. 한번은 부산대학교에 우리 반 아이들을 다 부르셔서 그 제자들 많이 있는 데서 우리를 자랑스러운 제자들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성적으로는 부산대 구경도 못 갈 저희를 제자들이라고 소개해 주시고 네 인생이 참 기대되고 소망이 있을 거라고 믿는다고 해주셨던 장로님의 사랑은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한 번씩 전화 드리고 스승의 주일이 되면 교회로 모시기도 합니다.”

- 그런 사고뭉치 중구는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되나요?

“교회에 적응을 잘 못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참 예쁘게 생긴 누나를 보게 됐어요. 정말 연예인처럼 예쁘고, 단발머리에 뺨안 얼굴에 코맹맹이 소리를 내는 누나였어요. 누나는 새가족 팀이어서 저



한테 잘해준 건데 제가 오해를 한 거죠. 저 사람이 나에게 빠졌구나. 예수님은 관심 하나도 없고 그 누나가 인사해 주는 걸 받고 싶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누나가 어느 날 수련회에 가자고 했어요. 누나도 가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신가는 전혀 중요치 않고 누나가 가는 게 중요했죠. ‘너 가면 누나 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무조건 가야겠다고 결단하고 첫 인생 수련회를 떠났어요.”

- 수련회는 어땠어요?
“집회라는 현장을 제 눈으로 본 건 처음이었어요. 예배는 드렸고 찬양하고 이런 건 알았지만, 갑자기 불을 끄고 여기저기서 고함지르고, 주여 주여 하고, 방언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첫날에는 도망 나왔어요. ‘여기 있다가는 현혹되겠다.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 싶어서 화장실에도 숨어있다가 도망가고, 결국에는 이미 친구 한 명이 숨어있더군요. 결국 둘째 날 붙잡혀서 설교가 시작될 즈음 목사님이 설교하는 강단 바로 앞에 돌만 특별적으로 앉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재미도 없고 진짜 지루했어요. 그러다가 기도회가 시작됐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제 머리를 붙잡고 느낌에 1시간 정도 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이분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 끈적한 액체 같은 게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눈물 콧물이 막 섞여서 떨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하

아 있었어요. 그때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영접한 날이었습니다.”

- 그렇게 주님을 만나셨군요? 이후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해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중3 때 어머니를 다시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걸어가시는 어머니를 발견하고 바로 내리셔서 만나셨대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도 아들은 봐야 되지 않겠냐고 하셨다고 해요. 5년 넘게 제가 늘 기도했던 제목이 이뤄진 거죠. 울면서 ‘하나님, 엄마 보고 싶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보고 싶었던 엄마를 중3 때 다시 만나게 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어머니가 저를 키우겠다고 하신 거죠. 그렇게 어머니와 살게 된 이후 명절이 되면 아버지는 친가로 어머니는 외가로, 저는 가운데에서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눈치를 봐야 되는 생활을 계속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제대 후 복학을 했는데 인생이 재미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집을 나와서 교회 청년부실에서 지냈어요. 그러다 제 인생에서 굵직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고뭉치, 주님을 만나다

- 어떤 사건인지 궁금하네요.

“편입을 결정하고 고신대 신학과 면접이 있던 때가 명절 연휴 바로 다음날이었어요. 명절 첫째 날 둘째 날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교회에서 계속 누워 있고 컴퓨터 하면서 편의점 가서 라면 먹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명절이 끝나면



▲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제공: 이중구 목사

나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어학 공부를 하면서, 처음 6개월 정도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학교 마치면 다시 도서관에 가서 저녁까지 공부하다 보니 조금씩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어요. 이후로는 호주를 많이 느끼고 아이들과 어느 정도 대화를 하며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원을 가기 위해 2011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 호주 가시기 전에 신학교를 다니셨군요.

“네. 그렇죠. 그전에 과정이 좀 있었어요. 우리 가정에는 저 말고는 아무도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안 계세요. 어머니는 강한 불교 신자셨어요. 제가 군대 제대 후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소명을 받고 신학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던 공대를 그만두고 신학과로 편입을 했습니다. 어머니께는 차마 말씀을 못드렸어요. 그러다 한 달 만에 어머니께 들켰어요. 고신대 신학과가 공부를 정말 힘들게 시키거든요. 도서관에 새벽까지 있다가 집에 가게 되고, 가방에 이상한 책들이 있는 것들을 보시고 어머니가 눈치를 채셨어

교수도 하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셨던 거였죠. 그러나 제가 어릴 때부터 자랐던 교회는 합동 교단이었던 때문에 고민하다가 합동 교단의 신대원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합격이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시험에 떨어지면 다음 시험을 기다리기까지 집에서는 농팽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여달라고 매일 밤 울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바로 합격을 했어요.”

500원 받으려고 교회 출석

- 청소년 시절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맞고 속옷 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나시는 모습을 다락방에서 작은 창문을 통해 봤습니다. 이후 5년 반 정도 동안 어머니를 못 만났어요. 어머니가 안 계시다 보니까 밥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됐어요. 친할머니가 있는 산동네로 옮기게 됐는데, 거기는 저와 비슷한 부류의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이혼한 가정이라든지, 편부모나 조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친구들과 많이 어울



▲ 제18회 SPIRIT POWER 전국청소년연합수련회 현장. 제공: 이중구 목사

시길래 저렇게 뜨겁게 울면서 기도하나 봤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놈이 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늘 외롭다고 말하고, 방황하고, 하나님이라는 분 없다며 삶을 살아가는데 오늘 이 밤에 이 놈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이 밤에 한 번만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려주세요.’ 그 한마디가 그냥 그대로 가슴에 꽂혔습니다. 바로 꼬꾸라져서 무릎 꿇고 새벽까지 그 자리에 남

바로 면접을 보러 가야 되니까 양복을 가지러 친가에 갔어요. 친척들이 모두 계셨는데, 제가 이를 동안 제사에도 참여 안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안 드리고 하니 화가 나서 제 짐들을 문밖에서 던지면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발 들이지 마라.’고 하셨죠.” [GPNEWS]

Y.K.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선교 통신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임한 회개와 부흥

2022년부터 약 1년여 동안 슬로바키아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겨왔습니다. 2023년 초부터 우크라이나와 슬로바키아를 왕래하면서 흩어져 있는 난민들을 섬겼습니다. 최근 슬로바키아에 있는 난민들이 서유럽이나 북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우크라이나로 귀국하는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폴란드, 독일, 체코 등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그동안 도왔던 난민들을 만나 격려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모두가 각 지역에서 잘 적응하며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고 있음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는지 모릅니다.

부흥을 생각하면 늘 성도들이 많아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크라이나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이 부흥이 글리보께 마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



출처: Unsplash의 Benjamin Elliott

부터 지금까지 9명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흥은 주변 이웃들에게 흘러갔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예배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의 삶의

변화가 너무나 확연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영광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성탄절과 연말을 맞아 이곳 난민들과 독거노인, 고아와 장애인들 및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식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하고 식사를 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이고 행복임을 깨닫습니다.

한편으로는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리아 후스착 자매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우리 예배에 참석한 지 3년째 되는데 술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에 사고로 뇌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중환자실에 있었으나 지금은 감사하게도 코에서 호스를 빼내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차례 방문하면서 말씀을 들려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한 달 넘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환각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그녀를 도울 도우미를 보내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됩니다.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장애인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차량으로 장애인들을 예배 장소로 이동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성탄 선물을 전달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을 운전할 헌신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을 할 만한 헌신자들이 대부분 유럽이나 미주로 나가거나 전선으로 가는 상황이라 운전 헌신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현지 헌신자를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도록,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자 남편이자 형제를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GPNEWS]

우크라이나=전만규, 김미정 선교사

크리스천의 세상 바로 보기

코로나로 예배 제한은 '종교 자유 침해'... "대법은 종교 자유 보장 판결 해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한국교회가 정부에 의해 강제적 현장 예배 제한 등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은 데 대해, 최근까지도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이 최종 내려지지 않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이하 언론회)는 지난 11일 열린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포럼에서 제기된 주장을 근거로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했다.

언론회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한국교회는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현장 예배 제한과 일부 교회들이 폐쇄됐다."며 "또 코로나 확진자 진원지가 마치 교회가 되는 듯한 선동으로 큰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뜻 있는 목회자들과 법조인들이 소송을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에 의한 예배 금지 강제가 일부 풀렸지만, 근본적으로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회에 따르면, 현재 교회의 예배 제한과 지자체의 과도한 한국교회 핍박에 대해 여러 소송에서 1, 2심에서는 교회가 승소했으나, 각 지자체들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렇듯 대법원에 계

류돼 있는 사건은 7건이다(민사 5건, 형사 2건).

이에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는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주관하고 한국기독교문화연구소(이사장 이억주 목사, 원장 김승규 변호사) 등 37개 단체가 주최, 협력해 '코로나19와 예배의 자유'에 대한 포럼을 열고 법원의 종교 자유 보장 판결을 촉구했다.

이날 서헌재 교수(전 중앙대 부총장, 한국교회법학회 회장)는 각급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다르다고 지적했다.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서울행정법원, 광주지방법원)과, 종교 자유 침해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처럼 법원에서마저도 엇갈린 판결을 하고 있어 대법원에서 교회의 생명인 예배가 침해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는 이날 '왜 정부가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만 비대면 예배를 적용시켰는가?'를 분석했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세균(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씨가 2020년 7월 8일 중앙부

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방역 대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최근 감염 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면서,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활동을 금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을 통해 질병관리청의 자료에서 밝혀진 바로는 "교회 모임에서 신규 확진된 사람은 전체의 4.59%에 불과했다."며 "이것을 10배를 과장해 국무총리가 발표하면서 교회 현장 예배의 금지가 시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 방역'으로 인한 것으로, 한국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 최대한 순순수법하고 정부의 방역 정책에 협조하고 희생했는데 오히려 정부는 '교회발'이라고 하며, 방역 정책의 실패를 교회에 돌리려 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대법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의 종교의 자유 또한 정신적 기본권으로서의 헌법적 가치를 가지며, 내심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종교활동을 제한한 것에 엄격한 기준으로 사법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정부와 행정 당국

이 교회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벌과 역학 조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염병예방법은 형사 처벌의 대상과 운영 중단 또는 폐쇄 조치의 대상이 되는 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도, 방역 당국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운영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역학 조사관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회 출석 여부를 반드시 묻고, 역학 조사의 방법과 기간도 달리했다."며 "이런 모든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교회에 대한 대면 예배 금지, 예배를 드린다고 교회를 폐쇄한 행위, 벌금과 고소·고발을 남발한 행위로 인해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대한 왜곡된 선동 구호인 '교회발'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언론회는 "하루 속히 대법원이 이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가치와 평등과 비례 원칙에 어긋났던 것을 바르게 잡는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복음의 능력

거듭난 척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판단 기준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롬 8:14)는 말씀에 있다. 마음이 불결하고, 행실이 더럽고 부정하며, 부패한 본성에 이끌려 사는가? 그러면 새로워진 척하지 말라. 아직도 옛 사람이 살아 있다는 증거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착각 가운데 자기기만에 빠져 있고, 그릇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도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스스로 중생을 체험한 신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속이는 이들이 많다. 그런 사람들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골 3:7)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없다. 지금도 '여전히 그 가운데 살며 그 가운데서 행하기' 때문이다. [GPNEWS]

'거듭났는가 (J. C. 라일)'에서 발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오직! 절대! 전부의 복음! (12)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 '절대 믿음'

아브라함, 다윗과 같이 오직 믿음, 절대 믿음으로 복음을 믿은 세 번째 사람은 바울이다. 그렇다고 그가 자격이 있어서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다.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요, 복음을 대적한 자요, 살인한 자요, 그리고 악행하는 자였다. 그는 열두 사도의 반열에도 못 들어가는 아주 사악한 종교 비밀 경찰이었다. 그는 세상 권세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였다.

그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지만,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그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쓸 때마다 자신은 사람에게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수도 못 받았고,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그



일러스트=AI 제작. DALL-E.

런데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십자가의 비밀을 계시해주셨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바울의 서신서로 채워주셨다.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나 할례와 유대인들은 자신의 할례를 자랑하며,

율법과 족보를 가지고 바울이 세운 교회를 계속 흔들었다. 바울에 대한 그들의 공격은 단 한 가지였다. 바울이 그럴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바울 세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인정이나 평판이나 이익이나 보장 때문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하나님이 전부였다.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그들에게 실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다. 누구

와도 바꿀 수 없는 절대 믿음이였다. 놀라운 믿음의 근거를 가졌던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책임져 줄 조직이나 교단이나 권위나 그 어떤 보장이 그들에게 믿음의 조건이 될 수 없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절대 믿음이였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알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무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눅 9:23).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말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으로 정성껏 따르겠다는 말이 아니다. 절대이고 오직이어야 한다. 아멘. (2018년 8월) <계속> [GPNEWS]

김용익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2024 헤브론 캠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올해로 열 번째 맞이하는 헤브론 캠프는 다음세대가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복음찬치입니다. 우리 세대에 그날의 영광을 소망하는 다음세대 선교사들이 다음세대를 복음으로 초대합니다. 복음에 목마른 다음세대는 꼭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정 및 대상

- 일시: 2024.2.21(수) 오전 8시 ~ 2.24(토) 오전 11시 / 3박4일 합숙
- 장소: 헤브론원형학교
- 대상: 1)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형제, 자매
2) 복음에 목마른 학생
3) 이 땅의 다음세대를 섬기는 일에 통로가 되고 싶은 학생
- 모집인원: 훈련생 00명
- 회비: 15만원

2. 접수 안내

- 접수기간: 2024.1.12(금) 오전 9시 ~ 1.28(주일) 자정까지
- 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www.theschoolhebron.org
- 접수: 온라인으로 접수 (이메일 hebronschool@hanmail.net)
- 문의전화: 010-8459-1718, 010-4936-4641


3. 주요 프로그램

말씀듣기, 복음스킷, 찬양예배, 기도회, 소그룹 나눔 등

4. 합격자 발표

2024.2.2(금) 오후 4시 헤브론원형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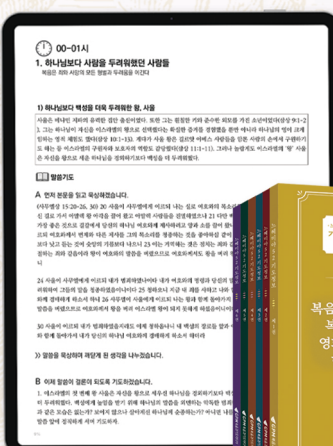
헤브론원형학교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위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 출시



6종으로 구성된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는 복음을 주제로 하여, 6가지의 영역을 기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2023 긴급기도정보 *별도구매

최근 열병에서 일어난 긴급한 기도제목을 담은 2023 긴급기도정보 6종(5권) eBook은 느헤미야 기도정보 Ver.9 eBook과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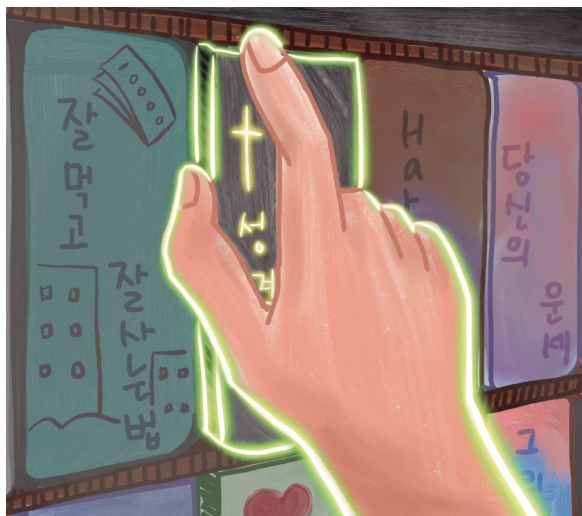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었다

다음세대 선교사를 양성하는 대안학교에 들어가 긴 시간 동안 훈련을 받았다. 복음을 듣고 감격과 감사가 있었지만 한편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멋진 삶도 살아 보고 싶었다. 두 마음을 가진 채 학교생활은 마무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최고로 망가져 있을 때 여전히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해 주셨다. 마음을 돌이키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되었다. 그리고 2023년, 20살이 되어 학교 마지막 과정인 2년간 단기선교의 시간이 시작됐다. 주님은 빌립보서 3:7~8, 12~14절 말씀을 주셨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수많은 조건을 갖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며 귀한 것이었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만이 그의 뜻대였기 때문이다. 나에게도 이 삶이 실제 되기를 기도했다.

청년 선교사로서 공동체 센터로 첫발을 내딛기 전날, 나는 내가 키우고 있는 강



일러스트=고은선

아지와 헤어질 생각에 눈물이 펄펄 났다. 내가 받았던 약속의 말씀과는 너무 다른 현실이었다.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었다. '강아지 때문에 눈물이나 흘리고 있는 내가 무슨 선교사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부르심의 첫발을 내딛었다. 내가 속해 있는 팀은 '전도'를 많이 했다. 매주 목요일 흥대 앞에서 전도를 했다. 가끔 흥대 근처를 다닐 때 유혹하는 것들이 보였다. 옷들을 보면 사고 싶고, 알고 있는 노래가 나오면 방금 전까지 찬양을 불렀는데도 가요를 흥얼거렸다. 점점 흥대에 가서 전도를

하는 시간이 나에게 눈과 귀의 즐거움을 채우는 시간이 되어갔다. 하루는 전도를 열심히 하고 돌아오던 중 탕후루가 보였다. 너무 맛있어 보였다. 여러 고민 끝에 많이 비싸지 않다는 합리화로 탕후루를 사서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다시 전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탕후루를 먹던 중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셨다. 단지 탕후루 하나 먹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달려갈 뜻대를 잊고 있었다는 큰 문제를

알게 하셨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진짜 고상하고 아름답고 멋진 삶은 예쁜 옷을 사는 것도,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 것도,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이었다. 나에게 허락된 매일의 예배가 나를 다시 살리는 힘이 됐다. 내 감정에 빠져 축 쳐져 있다가도 예배를 드리며 말씀 앞에 서면 어려웠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고 감사가 터져 나왔다. 허락하신 모든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우는 훈련 가운데 계속 순종해 나갔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선교사의 삶으로 말이다. 주님은 약속의 말씀 그대로 나에게 일하여 주셨다.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셨다. 나는 주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찬송이다. 더욱 뜻대 되신 그분을 향해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가겠다. [GPNEWS] 이하은

데이터로 보는 한국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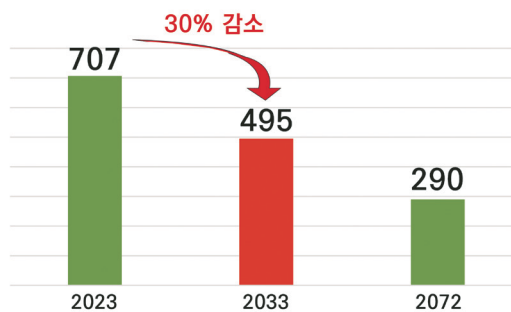
초등학교 4% 감소하는 동안 교회 학교는 36% 감소

지난 10년간 일반 학생과 교회 학교의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를 살펴본 결과, 일반 학생은 2022년 기준으로 10년 전 대비 19% 감소한 반면 교회 학교 학생(예장통합)은 37%가 줄었다고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최근 밝혔다. 특히 교회 학교 초등부의 증감률(-36%)이 일반 초등학생(-4%)보다 9배가량 더 빠른 감소 속도를 보였다.

[표] 학령별 인구 변화 : 일반 vs 교회 학교

구분		2013	2022	증감률
0~6세	일반 영유아	326	220	-33%
	★교회 영유아	10	7	-42%
초등 학생	일반 초등생	278	266	-4%
	★교회 초등부	18	11	-36%
중고등 학생	일반 중고생	370	261	-30%
	★교회 중고등부	16	10	-38%

영유아와 초·중고 학생의 인구 변화 예측치를 살펴보면 2023년 707만 명에서 2033년 495만 명, 2072년에는 29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10년간 영유아+초·중고 학생 인구는 30% 감소할 전망이며, 그중 초등학생은 -47%로 절반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국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GPNEWS]

* 기사 전문은 QR코드 검색



북한 부흥을 위하여

北, 남북을 적대 관계 규정하며 탈북민 통화 처벌 강화



▲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 여성들. 특정 기사와 관련없음. 출처: 유튜브 채널 Wall Street Journal 캡처

한반도에서 지금 가장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개인의 어떤 자유도 없는 북한 주민과 그 땅을 떠난 탈북민을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의 인권회복과 진정한 부흥을 소망하며 기도하자. <편집자>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남

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함에 따라 올해도 한국 문화를 비롯해 탈북민과 전화 통화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2024년은 한국과 새로운 대화나 협조, 남북 관계 개선이 절망적"이라며 "지난 20~30년 사이에 북한 내에서 한국의 영향이 커졌고,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영향을 차단하는 것이 필수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이제 밀수나 월경(越境)은 꿈도 꾸지 못한다며 마지막으로 남

아 있는 것이 전화인데, 중국 전화기를 이용한 불법 통화, 중국에 출장 나온 북한 주민과 조용히 만나는 기회 정도 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들에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데 장사도 안되며, 개인 경제활동

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 여전히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개 처형을 비롯한 처벌이 심해졌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공포심이 가득하며 새해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GPNEWS]

北 전국 9개 교화소 운영...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수감 인원 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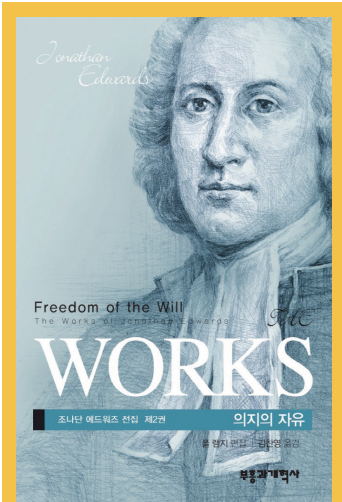
북한이 전국적으로 9개의 교화소를 운영 중인 가운데 최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으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이 늘고 있다고 지난 10일 데일리NK가 전했다. 매체 소식통은 "함경북도 전거리교화소, 자강도 성간교화소 등 사회안전성 교화국이 관리하는 9개의 교화소가 지금도 운영 중이며,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진 교화소

는 없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교화소에는 북한 형법에 근거한 모든 죄가 골고루 있다."면서 "죄목으로 따지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위반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행위자, 살인, 강도, 밀수, 마약, 유괴 순으로 수감자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가재산탐오, 낭비죄, 대외적권위훼손죄도 적지 않다."며 "이전과 다

른 점은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던 비법월경죄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은 코로나19 시기 전염병 차단을 명목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월경(越境)을 시도하는 주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어 비법월경죄로 교화소에 수감되는 인원수도 줄어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화소 수감자들은 모두 교화반에 소속돼 강제노동에 처해지는데, 교화반으로는 ▲탄광 ▲광산 ▲임업 ▲건설 ▲농산 ▲남새(채소) ▲벼 ▲축산 ▲세멘트(시멘트) ▲시체처리 ▲공무 ▲실내(뜨개질, 인조눈썹, 가발 등 생산) ▲취장(취사 담당) 등 여러 종류가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GPNEWS]

오직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자유



조나단 에드워즈 지음 | 김찬영 옮김
| 부흥과개혁사 | 672p | 2016

첫 사람 아담은 자유와 의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자유의지를 주셨다.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

셨다. 그러나 이것은 창세기에서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의지로 악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의지를 갖는 대로 행했다. 이 일의 결과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의지를 거둬들이지 않으셨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것을 부정하는 자들이다. 우리 안에 일말의 선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일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입증되었고 그 이후의 모든 세대를 걸쳐 지금 이 시각까지도 입증되고 있는 현재 진행의 역사이다. 우리의 의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심지어 선을 대적하며 모든 선행의 창조가 되시는 하

나님을 반역한다.

우리의 의지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의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 결정력을 가질 때에만 선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 결정을 할 때 마음의 상태는 그 어느 것에도 선택하고 악하다는 경향이 제거된 중립적인 상태에서만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즉 해결해야 할 논점인 의지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자기 결정력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도 하지 않은 채, 자기 결정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가정하여 논점의 주장을 사실로 가정하여 사용하는 오류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지적한다.

의지는 마음의 기능이다. 분명한

방향성, 즉 기우는 마음이 있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선택이란 불가능한 일이다. 반드시 한 대상이 더 우세한 경향을 띠기 때문에 선택이라는 결과에 이른다. 만약 (불가능한 일이나) 정확하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는 평형상태가 유지되는 마음이 있다는 가정을 한다면 거기에는 의지도 존재할 수 없다. 또한 그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중립 상태가 선하다는 그들의 가설은 참이 아니다. 우리의 중립 상태는 선하지 않고 차라리 악함에 훨씬 가깝다. 우리에게 선을 선택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고 아무리 중립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엔 악에 대한 경향으로 기울다 결국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지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질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의지에 완전히 복종하는 자유일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모든 주장에 대하여 그들이 말하는 방식대로 논증하고 반박하며 설명한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동료 목사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에 대한 그의 진짜 본심을 드러낸다.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런 자기 결정과 자기 의존 개념은 회심하게 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기도를 막거나 악화시킵니다. 사실상 이런 개념은 회심 개념 자체를 파괴합니다.”

그의 관심은 논쟁의 승리나 자신의 주장을 관철함에 있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 앞에 죄인으로서 그들이 무릎을 꿇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GPNEWS]

최현정 선교사

☞ 지면으로 보는 인터넷 복음기도신문

어머니와 검정 비닐봉지



일러스트=AI 제작, DALL-E.

“아버지, 이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군에 있을 때 들으면 웬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곡이었어요.” 몇 년 전 아들이 건넨 곡은 ‘가족 사진’이라는 제목의 노래였다.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 아버를 닮아 있네

아! 아들이 그런 정서를 알아가

는 나이가 됐나? 웬지 말이 조금 통할 것만 같은 묘한 느낌으로 노래를 듣는데 만감이 교차했다.

그랬겠지. 인생 처음으로 내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공동체인 군대라는 곳에서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그러나 그 절망의 시간이 아들에게는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과 이해의 시간이 되었나보다. 참 감사한 일이다.

내게도 그런 기억이 있다. 꽤 오래전 이야기다. 어머니는 장성해서 분가해 사는 우리 집에 자주 들르

셨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머니 집에서 그리 가깝지도 않았던 곳에 있었는데도 그러했다. 버스를 갈아타고 와야 하는 거리였음에도 어머니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어머니가 집을 떠날 때면 언제나 검정 비닐봉지가 그 손에 들려 있었다. 봉지 안에는 우리 가정에서 주중에 미처 버리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가 담겨 있었다.

우리 부부는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각자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러나 번번이 그런 우리 요청은 묵살됐다. 당시 맞벌이를 하던 우리는 아파트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간을 맞추지 못해 뽕새나는 봉지를 주말에만 버려야 했다. 그런 상황을 알게 된 어머니가 우리를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

당시 우리가 살던 그 아파트는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이 왔을 때만 입주민이 버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새벽같이 출근해야 하는 우리 가정에는 언제나 음식물 쓰레기가 포화상태였다. 그런 우리를 돕기 위해 어머니는 그것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몇 겹으로 둘러 핸드백에 담아 가져가셨다. 그때는 그 어머니 마음을 몰랐다. 감사한 것은 사실이지만, 왜 그리 궁상맞게 그러시냐고 타박하곤 했다.

훗날 알게 됐다. 자식을 사랑하는 어머니가 늘상 분주하게 살아가는 아들과 며느리를 도와주는 사랑법이었던 것을.

세월이 흘러 거동이 쉽지 않은 노년의 어머니가 우리가 사는 곳 인근으로 이사를 오셨다. 그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돌아오는 내 손에는 언제나 비닐봉지가 들려 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미안하네. 맨날 쓰레기를 들고 가게 해서...”

그때 나도 모르게 툭 그렇게 툭 튀어나왔다.

“수십 년 전 어머니가 그때 하시던 일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세대 차이, 세대 간 갈등을 이야기한다. 또 우리 앞 세대를 살았던 세대에 대한 원망과 오해가 많다. 그러나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라는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 순종해보자. 모든 부모세대는 다음세대를 위해 다양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가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땀과 눈물을 흘렸던 세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알게 된다.

[GPNEWS]

C.K.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후원자 명단

2023. 12. 25 ~ 2024. 1. 15
(가나다 순)

개인 강성민 김선례 김선희 김수미 김신애 김애심 김진희 김형숙 문용문 박경희 박성규 박신희 신혜경 안민자 오상훈 우해정 유영권 윤미자 이영선 이영욱 이종훈 이지수 이진희 이희순 정요한 정호진 조형광 존/정희 최근희 최영석 최은정 최점욱 홍찬일 황일문 무명

교회 및 단체

강서침례교회 겨자씨선교회 목자교회 문광교회 반석중앙교회 빛과함께하는교회 샘물교회 서현교회교정팀 오예교회 주나임교회 주소광교회 참종양더라교회 헵시바교회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5014-0406-8
E-mail: press@gpnews.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장용호(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